

“금속 13기 첫 투쟁지침, 고용승계 쟁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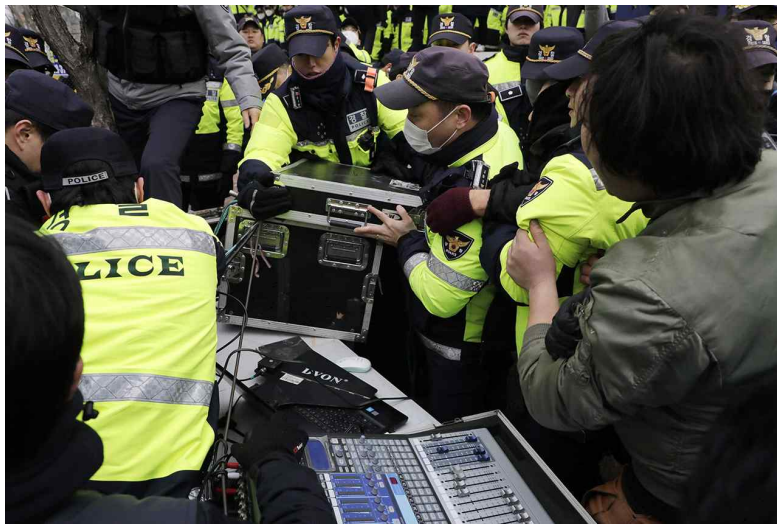
유틸리티테크지회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윤석열 경찰, 일본 먹튀자본 비호 폭력

금속노조가 일본 니토덴코 자본에 한국유틸리티테크 공장철거 중단과 고용승계를 거듭 촉구하면서,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가 2월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한국니토유틸칼 앞에서 ‘한국유틸리티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600여명의 금속노동자가 함께했다. 한국니토유틸칼은 니토덴코 100% 출자회사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본 먹튀자본이 금속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고 있다. 불탄 것은 공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다”라며 “고용승계도 면담도 거부하는 오만한 니토덴코 자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금속노조 13기 위원장으로서 최초 투쟁지침을 내린다. 오늘 이후 금속 동지들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오직 전진



한다”라면서 “고용승계를 반드시 쟁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유틸칼 하이테크지회장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디찬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다”라며 “니토덴코 자본은 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설 연휴가 지나면 일본 먹튀자본 용역과 이들을

비호하는 공권력이 공장을 철거한다”라며 “금속 동지들이 노동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바리케이트가 돼 달라”라고 호소했다.

양한웅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집행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오늘 집회를 막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집단이다”라면서 “공권력은 오늘도 노동자가 아닌 일본 자본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할 한국니토유틸칼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이 막았다. 경찰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음향장비를 파괴, 탈취하며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먹튀자본을 두둔하는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니토덴코는 금속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을 맞보기 전에 당장 고용승계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태평양은 노동자 핍박 그만”

118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촉구 ... “대형로펌이 노동자 내몰아”

금속노조와 118개 시민사회단체가 일본자본 니토덴코를 대리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무법인 태평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등은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범무법인 태평양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사수,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사가 550명이나 있는 대형법률사무소로, 니토덴코와 계약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청산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라고 자임하는 태평양이 일본 먹튀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일본자본 니토덴코 뒤에서 가압류를 조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핍박하는 범무법인 태평양의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제하는 규제패키지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한나 한국천주교 수녀연합회(정의·평화·창조질서 보존분과 소속) 수녀는 “범무법인 태평양은 일본자본 이윤 보호를 중단하고, 부당한 해고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탄압의 배후에 대형범무법인 태평양이 있다”라며 “태평양이 니토덴코 대신 쓴 서면과 소장은 해고노동자의 피로 얼룩져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거 강제집행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태평양이 져야 한다”라면서 “금속노조와 해고노동자, 시민사회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범무법인 태평양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에서 손을 떼라”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월 6일로 30일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100% 지분을 가진 일본자본 니토덴코는 2022년 공장화재를 핑계로 위장폐업 의혹 속에 청산을 강행 중이다. 1월 8일 지회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구미시청은 농성장 철거를 승인했고, 12일 법원이 철거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월 16일 10시 수백명의 용역과 경찰, 법원 집행관 등과 노동조합 사무실, 공장 철거 강제집행을 강행한다고 통보했다.